

# 특수학교 초등 미술교과의 운영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urrent Operating Status of Art Class and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Special Schools

한 송 이 (인천은광학교 교사)  
이 미 숙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김 광 명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석사과정)

### 〈 요약 〉

본 연구는 특수학교 초등 미술교과 운영 및 교과서 활용에 대한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특수학교 초등 교사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유기술식 문항내용은 분석 및 범주화하여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특수학교 내 초등 미술교과 운영은 교사 중심의 도제식 형태로 시범을 보여 지도하는 전통적 수업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체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편이지만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과 학습 자료가 부족하고 학교의 미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흡한 교육 환경이었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행복감, 자신감, 성취감에 교육목표를 두고 미술교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초등 미술수업의 문제점으로는 내용이 많고 어려운 교과서, 부족한 미술재료와 미술실 그리고 보조 인력의 결핍을 꼽았고, 개선방안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미술수업 자료를 보급하고, 교사 간 상호교류의 장(場)이 마련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 <주제어> 특수학교, 초등, 미술, 특수교사

미술은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등도 및 중도 장애학생의 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이며, 창의성, 인성, 문화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특히 학령기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인 미술교육의 실시는 예술을 통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경험으로 이어져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Eglinton, 2003). 김시원과 김태강(2015)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특수교사들은 교과교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에게 교과교육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은 아직까지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연구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초등 교사 117명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초등 미술교

과 운영 실태와 미술수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빈도분석(빈도, %, 순위 등) 및 다중응답분석 방법과 함께 자유기술식 문항내용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특수학교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술교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사들은 미술의 3가지 영역인 체험, 표현, 감상 중 '표현'에 가장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었다. 둘째, 교수·학습 형태는 장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기능 중심적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교과서는 주로 수업 시간과 연간계획 및 학습지도안을 작성할 때 사용하며 교과서 지도 시 단원이나 제재를 선별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초등 미술교육 환경은 학교에 미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이 미술실이 아닌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육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미술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행복감, 자신감, 성취감에 교육목표를 두고, 대체로 미술교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특수학교 초등 미술수업 시간에 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사 인식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교과서는 필요하며, 대체로 교과서 분량은 수업시수에 적절한 편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셋째, 본 연구에서 특수학교 초등 교사들은 대부분 교과 전담제 실시를 요구하였는데 이동원(2015)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교과 전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육 연수와 관련해 특수학교 초등 교사들은 현장에서 미술과 관련한 연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교육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초등 미술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미술수업의 문제점으로 초등 미술수업의 문제점으로 기본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가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특수학교 현장에는 미술재료 및 미술실과 같은 물적 자원의 미술교육 환경과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인 인적 자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특수학교 초등 미술수업의 개선방안으로는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장애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미술수업 자료를 보급하고 교사 상호교류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별책3] 기본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김시원, 김태강 (2015). 광주·전남지역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연구*, 10(2), 79-102.
- 이동원 (2015). 지적장애학교 미술교과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8(1), 157-181.
- Eglinton, K. A. (2003). *Art in the early years*. New York: Routledge Falmer.

\* 이미숙(교신저자)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mslee3@kongju.ac.kr)